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성령충만이 주는 만족

성경: 에베소서 5장 18-21절

Tag: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 법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엡5:18-21)

오늘은 성령강림절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그토록 예언하였던 성령의 강림

신약의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르치셨던 성령의 강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7일 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오순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하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대가를 힘입고, 이제 드디어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완성된 셈이다.

사실 성령이 사람들로부터 떠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이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세상이 타락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사람들로부터 떠나시게 되셨다.

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6: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인류를 위한 대속적 죽음, 죄에 대한 삶을 모두 지불 한 후에는 합법적으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셨다.

다만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조건은 오직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있다.

이로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20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20)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는 성령충만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

누가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누가가 신약 성경을 두권 기록하였는데, 오직 누가만 그의 저서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무려 14회나 사용하였다. (성경 전체로 이런 표현은 모두 15회 사용되었다.)

누가의 저술을 제외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딱 한번 사용되었다.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엡5:18)

죄를 이기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모든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성령 충만이다.

인류는 항상 방황하며, 방탕하며, 거짓에 속으며, 스스로를 속이며, 남까지 속이며 살아왔다.

항상 불안하며, 불만족스럽고, 허황된 꿈을 좇으며, 남을 괴롭히며, 남에게 괴롭힘 당하며,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저주하며, 남탓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비정하고, 뉘우칠 줄 모르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쌀쌀맞다.

이런 상황에 이념론자들은 권위에 도전하라고 가르치고, 어른을 공경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갈라치고 가난한 자를 옹호하고, 남자와 여자를 갈라쳐서 여자를 옹호한다.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쳐서 인간을 옹호한다. 기독교유일신앙과 범신론을 갈라쳐서 범신론을 옹호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더욱 고뇌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한다. 물론 이런 현상은 모든 인류의 공통 현상이다. 그래서 오만하고 욕심 사납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핑계거리를 찾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여기에 더해 대중 매체는 이념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정직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조선시대에는 유교 율법주의에 사로잡혔고, 건국 초기에는 반공주의에, 그 다음에는 군사독재에,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에, 그 다음에는 신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혔다.

개인적인 죄와 정치적인 죄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은 항상 갈팡질팡이다. 급기야 20년 전부터는 개신교에 대한 폄훼 운동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이단들은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서 젊은이들과 초중생들의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인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죄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엡5:18)

방탕을 이기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이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여러 가지 고귀한 성품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열매가 사람들을 짐승에게서 본래의 사람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감당한다.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5:22)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5:23)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인간이 맺어야 할 가장 고귀한 열매다.

성령의 열매는 기뻐하는 것이다. 사람은 기뻐할 때 모든 악한 것들과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된다.

죄에 빠진 사람들은 쾌락을 기쁨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죄인들의 쾌락은 한번도 사람들에게 만족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랑과 기쁨이 결석한 곳에는 쾌락도 허무에 불과하다.

성경은 사랑과 기쁨이 결석한 곳에 있는 쾌락을 방탕이라 부른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인간관계 필수적인 성령의 열매다. 이들에게 복이 있고, 관계란 오래 참아 주어야 하고, 선을 베풀어야 한다. 화평이란 오래 참을 때 가능하고, 자비란 베푸는 것, 양선이란 선을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충성이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성실함을,

온유는 식구들을 향한 부드러운 태도를,

절제는 스스로를 향한 올곧은 마음을 말한다.

이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곧 성령 충만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능가한 만족이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속이 주는 만족은 거짓만족이다. 거기에는 인생파멸이 도사리고 있을 뿐이다. 누군가가 그 속에서도 살아 남았다면, 그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둔 행운아일 뿐이다.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일 뿐이다. 인생 모두 허비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셈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경성하여 성령충만이 주는 만족을 갈망할 것인가?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